



## 네오바이오(주)

###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으로 선정

네오바이오 주식회사(대표이사 유종철)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으로 선정됐다.

이번에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은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

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, 독일 등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19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,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다.

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되는 이노비즈(Inno-Biz)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투자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가리키며 보통은 기술혁신이 뛰어난 기업을 선택하여 각종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제도이다.

네오바이오(주)는 이번 이노비즈 선정에 계기로 타사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기술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며,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인증하는 업체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.

## (주)제일바이오

### 자율점검제 최우수업체로 선정

(주)제일바이오(대표이사 심광경)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006년도 동물용의약품 자

율점검(Self Audit) 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(주)제일바이오는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자율점검을 이루어 품질관리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조·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'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'를 도입, 시행하고 있다.

## 교촌F&B(주)

### '교촌치킨' LA 진출

'교촌치킨'이 LA에 상륙한다.

지난 2005년 미주진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교촌F&B 주식회사(대표이사 권원강)는 올 1월 중 LA와 토랜스에 미주 1, 2호점을 오픈한다.

LA점은 6가와 세라노에 있는 '세라노 마켓 플레이스' 내 리커가 있던 자리에 들어서며 토랜스점은 오는 1월 12일 오픈하는 대형 할인마켓 '프레시아(Freshia)'에 입점한다.

현재 LA점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, 1월 중순께 토랜스점이 1호점으로 우선 오픈한 뒤 LA점은 1월 말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.

미주시장에서도 소스의 현지화를 통해 한인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뒤 장기적으로는 타인종 고객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 1991년 국내에서 1호점을 낸 교촌치킨은 현재 1,06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, 하루 평균 4만 8,000여명의 고객이 찾고 있는 한국 토종 치킨브랜드로 성장했다. <img alt="Small logo of a chicken or bird." data-bbox="610 895 640 915"/>